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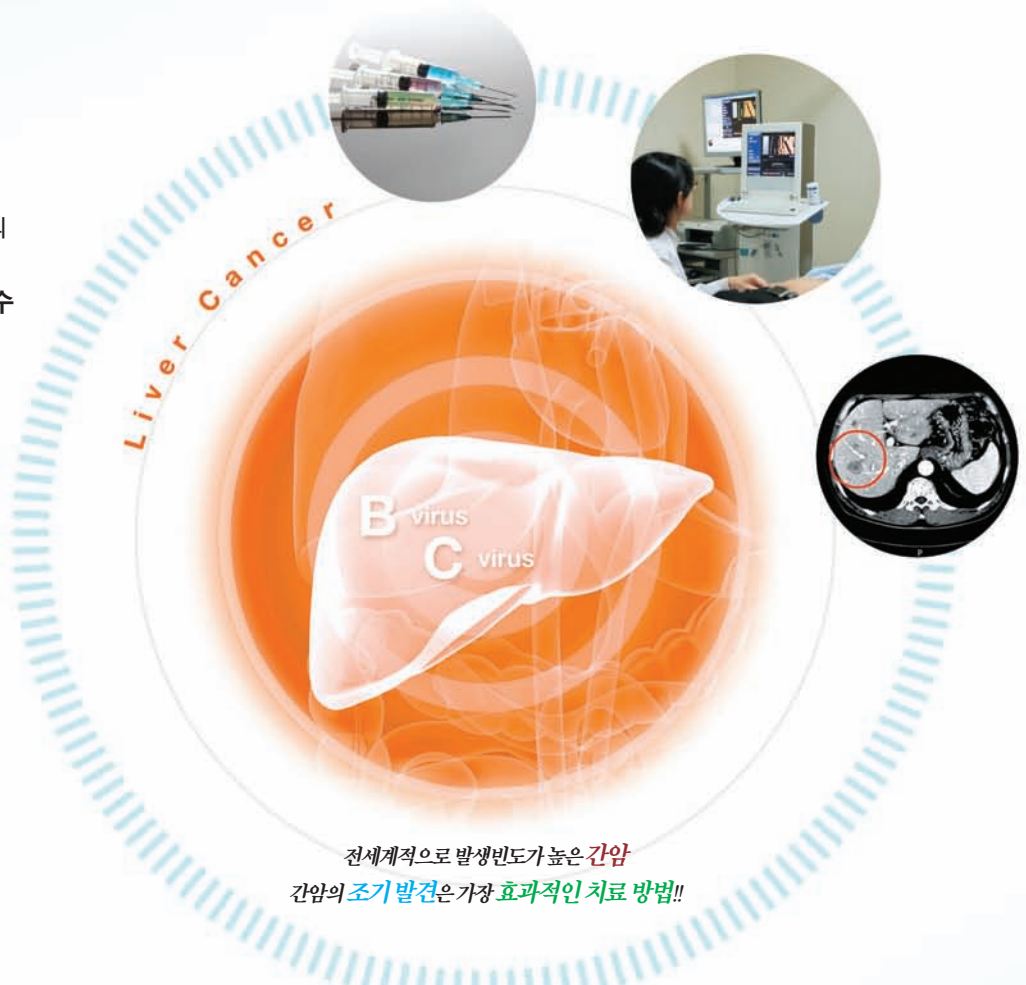
#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5  
간암

특별한 만남 간암 전문의  
외과 신우영 교수  
소화기내과 이진우 교수

의학정보 1  
간암 이야기

의학정보 2  
간암의 수술적 치료



전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간암  
간암의 조기 발견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JCI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 별 을 쳐다보며

- 노천명 · 시인 -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밭은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니다

친구보다  
좀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땃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본땃자  
또 미운 놈을 혼내 주어 본다는 일  
그까짓 것이 다아 무엇입니까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잖은 일들입니다  
밭은 땅을 딛고도 우리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니다



2012. 05+06

# CONTENTS

May. Jun Vol. 93

02	행복을 전하는 글	별을 쳐다보며
04	개원기념사	제2도약의 원년이 되자
<b>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5 간암</b>		
06	특별한 만남	소화기내과 이진우 교수
09		외과 신우영 교수
12	의학정보 1	지나치게 과묵한 간암 이야기
14	의학정보 2	간암의 수술적 치료
16	환자수기	나의 간암 극복기
18	건강책갈피 1	잘 다스려야 낫는하게, 백세까지 건강
20	건강책갈피 2	따뜻한 날, 손과 발이 얼음장! 왜일까?
22	비전 선포식	지속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
24	해외의사 연수	2012 이종욱펠로우십 장기연수사업
25	포커스	인천지역 최초 '조직형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 성공
26	감사편지	행복의 시간
28	희망천사 릴레이	전직 성우 김경숙 씨의 '목소리 기부'
30	사회복지 기금 모음	헌신적 마음과 응원은 성공적 골수이식으로~
31	특목약물상담	콜레스테롤 합성이 많은 저녁에 복용하라~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38	알립니다	언론보도 / 친절직원 소개 / Global Inha / 발전기금 무료공개강좌 / 암 진료시간표



의료원장 박승림

## 제2도약의 원년이 되자

사랑하는 의료원 가족 여러분

故 조중훈 이사장님의 의학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한 숭고한 뜻, 그리고 인천시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개원하였던 우리 병원이 문을 연 지도 벌써 16년이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새삼 빠름을 실감하며, 오늘의 인하대병원이 있기까지 묵묵히 도와주신 재단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오늘 개원 16주년 기념식은 신관신축 건축허가 취득과 더불어 202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소위 "VISION 2020"을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의료계는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 산업화라는 패러다임의 극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과 인근병원들은 병원시설 확장을 통한 전문화, 센터화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우리 병원은 시설의 한계로 인하여 상대적 위축감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도 좀 늦긴 하였으나 2008년부터 병원확장을 통한 발전전략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수차례의 워크숍과 타당성 분석, 그리고 시설규모 및 운영 전략을 마련하여, 2010년 12월 이사회에서 600병상 규모의 신관 신축을 승인 받아 금년 4월 드디어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관신축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우리 병원이 지향



16th anniversary

해야 할 발전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비전 수립 추진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모든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병원 존재의 목적인 미션과 핵심가치를 재정립하였으며, 대내외 경영환경과 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먼저 미션(사명)은 우리 병원 존재의 목적과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간존중, 공존공영, 고객만족”으로 대표되는 사명(미션)을 적극 실천하여,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구성원의 사명감 고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활동과 인화정신의 기준이 되는 핵심가치는 ‘고객신뢰, 내부 화합, 첨단기술’입니다. 그리고 안전, 정직, 열정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며, 안전한 의료, 정직한 경영, 함께 이루어내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 병원의 강점이자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어서, 조직문화에 흔들림 없는 뿌리가 내리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으뜸 의료서비스로 존경받는 병원” 과 “국내병원 Top7 도약”으로 요약되는 비전 2020 기본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으뜸 의료서비스를 위한 환자중심, 책임봉사, 성과창출을 의미 하는 A-pro+ 슬로건을 업무의 기준으로 삼아, 환자가 행복한 병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 록펠러가 말했듯이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를 큰 목표는 큰 성공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큰 목표를 가지고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신관 신축과 성공적 개원은 중장기 발전전략의 근간으로써, 국내 선도병원과 대등한 경쟁을 넘어 세계적인 병원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진료의 특성화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중기 경영계획의 기본방향은 조직 혁신과 연구특성화 입니다. 신관 개원과 더불어 힘차게 이룩 할

수 있는 체질을 개선하는 기간으로써, 자력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손익구조를 합리화하고, 인사/보상제도를 혁신하여 능동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리더십 강화와 우리 병원 최적의 연구중심병원 모델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오늘 발표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실천하여, 다가오는 2020년대 국내 최우수 대학병원으로 거듭나도록 교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에 열정이 추가되어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인 환자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열정이 요구됩니다.

올해는 Top7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우리 병원 구성원 모두에게 특별히 변화에 대한 열정을 부탁드리며, 정호승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끝으로 오늘의 인하대병원이 있기까지 성과 성을 다해 주신 교직원 모두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박 승 립



## 소화기내과 이진우 교수

### Profile\_

이진우 교수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분야는 간암, 간염, 간경변이다.

## 무한한 치료기술의 발달은 나를 신나게 만든다! 하나님에게 받은 나의 능력을 나누고 싶어

간 질환 분야는 최근 15년간 진단과 치료분야에서의 많은 발전을 해왔다.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일부 질환에서는 완치라는 기쁨을 줄 수도 있어 이진우 교수는 요즘 많이 설렌다. 처음 '간' 분야에 뛰어들었을 당시 간암은 난치병이었고, 실제로 생명이 끊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당시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 노력과 동행으로 멀리가는 치료

“간에 관련된 많은 치료법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의학지식이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용할 무기가 많아지는 느낌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무제한으로 줄 수 있을 때 신나는 거 같아요.”

새로운 의학지식이 나오면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에게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 교수의 기쁨이다.

진행성 간암이라 하면 난치병으로 생각했던 전공의 당시 이 교수는 간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법을 개발하고, 오히려 진행성이 되기 전에 찾아내어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개척이 필요한 분야에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평생 지속적인 친구 같은 의사가 되고 싶은 바람을 갖게 했다.

모든 암이 발견되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특히 간암은 간암치료에 관여하는 진료부서 간의 팀워크 구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하대병원의 간암전문팀은 더욱 효과적인 간암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분야의 의료진이 함께 모여 환자의 진료 자료를 검토하고 최적의, 최상의 진료를 위해 고민한다고 이 교수는 자신 있게 전한다.

이 교수는 혼자 빨리 가기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럿이 힘을 합쳐 멀리 가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자신을 찾아 온 환자에게 최종 선고를 할라치면 가슴이 뛰는 이 교수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의 나이에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환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생각하며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수와 손을 잡고 치료를 시작한다.

이 교수의 생각은 전국 어디를 가도 사실 표준화된 치료법은 같고, 우리 인하대병원의 간암 팀의 치료 성적은 자신 있다. 힘들고 막막하지만 서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를 환자에게 주는데 정성을 다한다.

지금도, 환자를 바라보는 잔한 이 교수의 마음에 전율이 느껴진다.

“다른 종양과 달리 위험 대상으로 간암 감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 작은 간 세포 암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완치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진행성 간암은 치료가 어렵지만 환자의 이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료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교수다. 또 간암이라는 중증질환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양질의 최신 치료법을 환자에게 최대한 제공하여 암 정복 실현을 위해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

### 나의 능력과 시간을 환자에게 나누고 싶어

생존율이 낮아 대표적 악성 종양인 간암, 그래서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불안함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이런 어려운 상황의 환자를 치료하고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아니 감사한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과 허락한 시간을 환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 교수다.

그는 간암을 앓다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의과대학 은사님의 친동생 이야기를 기억한다. B형 간염보유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고 지내다가 간암으로 진

행되었고, 절제술을 하면서 딸의 결혼식에 손잡고 입장하기를 기대했지만, 전이가 급격히 진행되어 힘든 말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과의 작별인사, 딸에게 결혼식 참석을 못할 거 같아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모습이 아직도 가슴을 찌른다.

말기 상황에서 의료기술로 1~2주 생명 연장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며 환자에게 남아있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교수는 지금은 잠시 못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인천의 '민들레국수집'에서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신앙이 두터운 그는 '왜 선교활동은 안 하고 진료만 하는 걸까?'라며 의구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묵묵히 진료만 해주는 봉사자들을 보았죠. 약을 주면서 말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스스로 마음의 변화가 오는 그런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에는 많은 말조차 구차한 변명임을 알았다. 조만간 다시 봉사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이 교수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는 바로 의료선교이다.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하는 캠프를 생각하고, 간질환에 관한 신약 임상도 많이 유치하려고 욕심을 낸다. 환자에게 고가의 신약 치료 기회가 온다는 것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성경의 율자를 즐겨 읽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을 되돌아본다. 최근에는 김난도 교수의 '하프니까 청춘이다'를 읽었다. '지금의 그대는 미래의 그대에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라. 미래의 그대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책의 마지막 구절을 오늘도 가슴에 새긴다.

하루를 짝 차게 보내고, 또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한걸음씩 나가는 이 교수에게 멋진 미래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 외과 신우영 교수

### Profile

신우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분야는 간담도외과, 이식외과이며, PSAF(Plasma Separation, Adsorption and Filtration) 인공간 시스템의 발명자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트리플 원칙 - 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수술이 매우 잘 되면 명상이 필요!



지난 1월 뇌사자 간 이식수술을 성공한 장본인 신우영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아직 이런 자리에 나설 위치는 아니라고 극구 사양하며 장황한 근거(?)를 대시지만 은근슬쩍 자리 잡고 앉아 버렸다. 훈남이셔서 ‘칼잡이’ 느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꺼내자,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외과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연다. 외과의사는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의사라고 신 교수는 생각한다.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하는데 신 교수는 오히려 ‘둔한 장기’라고 해야 맞는단다. 뭔가 부하가 걸리면 반응을 빨리 보여야 하는데, 혼자 꼭 참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간암은 모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간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간의 용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또 최근에는 B형 간염이 줄어들든 대신 수혈, 문신 등 바늘에 찔리는 문제로 발생하는 C형 간염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C형 간염은 발병만 되면 완치가 가능한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무관심이 안타까운 신 교수다.

### 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한 때는 사흘에 걸쳐 수술 해도 끄떡없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신 교수는 더듬는다. 혹시나 잠이 올까 싶어 식사도 거의 안 하며 수술장에서 있었다는 그는 그야말로 천직이 외과의사인 듯싶다.

신 교수의 수술 트리플 노하우는 “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병변 위치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시야 확보가 되어야 병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여자에게 청혼 하는데 너무 큰 케이크에 반지를 숨겨 놓으면 찾기 어렵잖아요.”

참~ 기막힌 비유를 찾아내는 신 교수다. 사실 피를 보며 수술장에 서는 서전이라며 자신이 피가 마르는 듯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신 교수 역시 남다르지 않다. 수술 중 멈추지 않는 피를 보며 당황했지만 침착한 순발력으로 위기를 넘긴 일, 뇌사자의 간을 적출 하는데, 자꾸 대동맥이 찢어져 애를 먹었던 경험도 있었다. 이때는 이식 받을 3명의 얼굴이 스쳐가면서 평정을 찾고 성공리에 적출을 끝내기도 했다.

지난 4월 초에는 내과적 치료를 받던 60대 여자 환자를 수술했는데, 아주 어렵게 수술하고 또 재수술했다. 막힌 동맥이 뛰는 것을 수술장에서 초음파로 확인하는 순간 신 교수는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수술 며칠 후 그렇게 애먹이던 동맥상태를 확인하려고 방사선 선생님과 함께 초음파를 보았죠. 제가 수술한 부위를 가르치며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동맥은 잘 뚫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서 그날 고생한 스텝들과 회식했습니다. 하하.”

생생한 수술 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신 교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도 될까? 어려운 퍼즐을 맞춰 나가며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의 느낌이라고..... 아무래도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인 신 교수는 원칙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절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술이 매우 잘 되면 잠시 쉬어간다는 것이다. 순조롭게 잘 되어도 한번쯤 의심을 해보면서 명상을 하거나 휴식을 한다고 한다.

## 간의 멧집 키우지 말고, 간부전은 간이 파업하는 것!

1월에 성공한 뇌사자 간 이식 수술의 이야기를 꺼내자, 이식 수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장, 간호 팀, 마취과와 함께 소화기 내과, 외과가 협진 공유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한다. 신 교수는 모두의 철저한 교육이 더 필요하고 보다 더욱 완벽한 암센터 세팅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수술 전이면 늘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야 하는 신 교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한다. 촬영 사진을 보면 '감'이 올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느끼고 어려운 상황이면 아니길 바라면서 수술장에 들어선다. 뇌사가 간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혜자가 결정되는데 이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기자의 수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생체 간 공여자가 나타나면 생체 간 이식을 하는데 우리가 가끔 마스크를 통해 보는 부자 간, 형제 간, 부부 사이의 간 이식 수술에 관한 훈훈한 내용들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76세 고령의 할머니가 남편에게 간을 떼어 주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생체 간 이식을 하려면 우선 혈액형이 같아야 하고, 몸무게를 고려하여 간의 크기도 적절한지 봐야 합니다. 두 명이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지요. 공여자가 검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식 후 수술한 환자의 합병증 여부를 잘 관찰하여야 하는데,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기보다 잘 대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신 교수는 알고 있다. 신 교수는 투덜대지 않는다고 간의 멧집만 키우지 말 것을, 간부전은 간이 파업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신 교수는 최근 TV를 통해 차인표의 영향으로 컴패션에 후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언젠가 그 연예인의 밴드 운동은 못 따라 하겠는데, 이번 일은 따라할 수 있었다며 흐뭇해한다.

요즘 간암 팀의 더욱 완벽한 세팅을 꾸리기에 바쁜 신 교수는 무엇이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후배에게 남긴다. 즐기고 받아들이면, 관심을 두고 보면 “재미”가 보인다고.....

훗날, 시골 농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신 교수는 요즘 집안 베란다에 작은 텃밭에 방울토마토, 상추 등을 가꾸고 있다. 생명을 주는 기쁨을 또 이렇게 맛보고 싶은 건 아닐까?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5 간암

암시리즈 2011년 • 9/10월호\_유방암 • 11/12월호\_대장암  
연재 순서 2012년 • 1/2월호\_소아암 • 3/4월호\_위암 • 5/6월호\_간암 • 7/8월호\_혈액암 • 9/10월호\_폐암 • 11/12월호\_갑상선암  
2013년 • 1/2월호\_자궁난소암

지나치게 과묵한 간암 이야기

# B, C형 간염 예방이 간암을 막는다!

간암은 70% 이상이 B형 간염과 관련이 있고 10~15%가 C형 간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환자의 약 20~40%에서 간암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성 간경변도 간암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예상되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암의 독립적인 발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침묵의 장기라는 간암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실제로 대부분의 간암 환자는 증상이 없이 건강 검진이나 만성 간염에 대한 정기 추적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간 손상이 시작되어 간염, 간경변을 거쳐 간암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간기능이 유지될 때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간 손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로감, 황달, 복수 등에 의한 복부 팽만, 복통이나 복부에 만져지는 덩어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암이 의심되는 경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CT, MRI 등 영상 검사와 간암 표지자 혈액검사 등을 이용하여 간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 최근 젊은 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B형, C형 간염 등이 간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만성 간염 바이러스인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B형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간암 발생 위험이 30~300배로 높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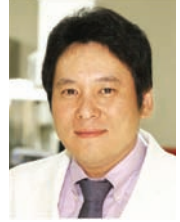
고, 현재 간암 환자의 발병 원인 중 80~90%는 이들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형 간염의 경우 우리나라는 출생 시 모자간 수직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밖에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및 감염자와의 성적 접촉, 또는 오염된 주사기와 바늘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몸살 기운이나 피로감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B형 간염에 감염된 성인의 5~10%, 소아의 30~50%, 유아의 90%는 만성간염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들은 평생 B형 간염을 짊어지고 가면서 간암이나 간경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C형 간염은 주로 약물중독자에서 주사기를 돌려 사용하는 경우 또는 피어싱, 문신 등 비경구적 경로로 전파되며 감염되었을 경우 만성 간염으로 발전할 확률은 50~70%에 달합니다. 이 경우 역시 간경변이나 간암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 어떤 사람들이 간암에 걸릴 위험이 높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가장 높은 위험 요소가 됩



**이진우 교수** | 소화기내과  
 • 전문분야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 진료시간 : 월(종일), 목(종일)  
 • 문의 : 소화기내과 ☎032-890-2224

니다. 간암은 70% 이상이 B형 간염과 관련이 있고 10~15%가 C형 간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환자의 약 20~40%에서 간암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성 간경변도 간암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예상되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암의 독립적인 발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 C형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서는 음주로 인해 간암발생의 위험이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알콜성 지방간질환도 간암의 위험인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간암 예방을 위해서 평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면도기 칫솔 등은 돌려쓰지 말고 성적인 접촉,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등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B형 간염 보유자인 산모는 주기적인 검사 및 출산 시 신생아에게 백신 등을 접종하는 스케줄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만성 바이러스 환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하여 혈액이나 초음파 등 영상 검사에서 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질환이나 비알콜성 지방간 등 간암의 위험이 있는 간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성간염환자에게 적합한 식사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해진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간이 못 다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간질환의 원인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염분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인체 면역기능을 높여주고 암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가공적 생약이나 기능성 음식보다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암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진단 당시의 병기와 환자의 간기능에 따라 선호되는 치료법이 다릅니다. 초기인 1, 2기 간암 환자들은 간이식술, 간 부분절제술 등의 수술적 방법이나 고주파 열소작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요법 등으로 치료합니다. 진행된 단계인 3, 4기 환자들의 경우 경도자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주로 시행하게 되나 제한적입니다. 간암의 경우 외과적 절제를 통한 암종의 제거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환자의 간기능이 나쁘거나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 간암의 치료는 어디까지 발달해 있나요?

과거와는 달리 간 이식술이 발달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비해 공여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뇌사자 장기를 기증받거나 혈액형이 같은 가족을 통한 생체 간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암 치료목적의 간이식 수술은 현재 일부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암세포의 진행경로를 차단하는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의 간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암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사이버나이프 및 HIFU(초강도 초점 초음파치료) 등을 이용한 간암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 간암의 치료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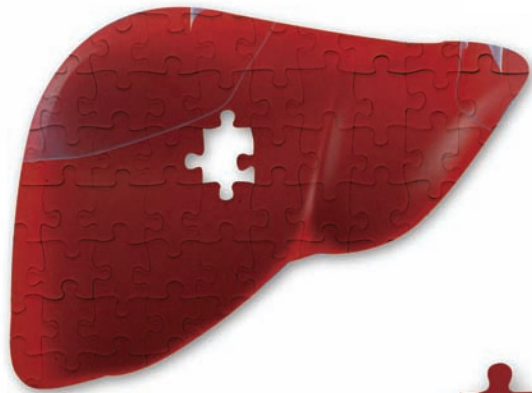


간암의 수술적 치료

## 간 이식, 생존율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수술로 평가

# 75%

간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75~85%로 가장 우수하다. 현재 간절제술 후 수술관련 사망률은 1% 이하로 감소하였고, 안전한 수술로 평가되고 있다. 수술적 절제술은 간 전체를 절제하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간이식을 받지 않는 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간을 전부 다 절제할 수는 없다.



# 85%



**글 · 신우영 교수 | 외과**

- 전문분야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 진료시간 : 외래\_ 월(오전), 목(오후)
- 문 의 : 외과 032-890-2250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암으로 '간세포암' 과 '간내담관암'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간세포암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므로 일반적으로 간세포암을 간암이라고 말한다. 2009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간암은 남자에서 4번째, 여자에서 6번째로 흔한 암이다.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폐암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이처럼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간암은 재발을 잘하고, 동반된 간 질환이 진행되어 말기 간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암의 재발률이 높은 이유는 원래 있던 종양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 다시 자라는 재발도 있지만, 간의 다른 부위에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간을 제거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종양 제거 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간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간암은 이들 외에 간 이식술, 국소 치료술 (고주파 열 치료술, 에탄올 치료술), 경동맥 화학색전술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간암의 치료 방법은 간암의 크기, 위치, 개수, 환자의 간 기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중 수술적 치료법 (간 절제술, 간 이식술)의 성적이 가장 우수하여, 간 절제술 후 5년 생존율은 약 60%에 이른다. 특히 간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약 75-85%로 가장 우수하다. 과거 간에 대한 수술은 출혈의 위험이 높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높아 위험한 수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술 기법 및 도구, 수술 전후 관리법이 발달하여, 현재 간 절제술 후 수술관련 사망률은 1% 이하로 감소하였고, 안전한 수술로 평가되고 있다. 수술적 절제술은 간 전체를

절제하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간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간을 전부 다 절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간암과 주변의 정상 간조직을 포함한 '부분절제법' 으로 치료하게 된다. 하지만, 간암 환자의 약 80%는 간경변증, 만성간염, 내지간 섬유증이 동반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간의 재생 능력이 크게 감소되어 있다. 따라서, 수술 후 남은 잔여 간 기능이 부족하여 실제 환자의 약 20%만이 수술적으로 절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간 이식술의 경우, 간 기능이 나쁘더라도 이식술을 통해 건강한 간으로 교환되므로 간 기능으로 인한 제약에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제약이 있다. 그 이유는 간 이식술 후에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 병의 진행이 매우 빠르고 임상 경과도 나빠서, 간암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초기 간암인 경우에 간 이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간 이식은 간암이 단일 종양인 경우 크기가 5cm 이하 이고, 복수의 종양인 경우 3개 이하이고, 각각이 3cm 이하 이어야 한다. 그리고 간 외부로 전이가 없고, 혈관에 침범이 없는 경우에 고려하게 된다.

간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체의 75-80%, C형 간염 바이러스가 10-15%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간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간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증상도 없는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나의 간암 극복기

##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일어난 기적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간이식을 받은 정석환입니다.

B형간염때문에 간경변과 간암으로 생명이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하대병원의 도움으로 간이식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 We met angels



2010년 10월 장염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갔다가 혈액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와 알부민 수치 등 몇 가지 수치가 이상 소견을 보여 소견서를 써줄 테니 큰 병원엘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여 큰 병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차일피일 병원 가는 걸 미루고 있던 중 2011년 4월 지방에 며칠 다녀왔는데 손발이 붓기 시작해서 이는 분을 통하여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진우 교수님을 소개받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CT와 MRI 촬영을 통하여 간경변과 암세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1cm 미만의 암세포 2개와 나중엔 색전술을 하던 중 발견한 암세포까지 3개를 시술받았습니다. 시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암세포 치료 과정치고는 간단하다는 생각에 착잡하지만 그런 대로 견딜만했습니다. 그러나 암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땐 눈앞이 캄캄했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왔고, B형 간염 보균사실을 알았기에 술, 담배도 전혀 안 하던 나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별어놓은 재산도 없고,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료비도 너무 큰 걱정이었으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었을 경우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다르게 색전술을 받은 후 그런대로 별문제 없이 지내다가 2011년 10월 초 일을 하는데 배가 아프고, 명치가 답답해서 체기라 생각을 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일주일 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인하대병원에 왔고 췌장염과 황달수치가 높아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간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최후통첩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퇴원 후 한동안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11월 중순부터는 배변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5일 아침, 배가 아프고, 일주일 동안 배변 활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복수가 차서 장을 누르게 되고 그래서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식사도 어려워졌습니다. 콩팥기능도 저하되어 이노제를 사용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입원 후 복수는 하루가 멀다하고 차기 시작했고 복수가 차면 일어나 앉는 것도, 배변 활동도, 식사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숨도 많이 찼습니다. 간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이식신청을 해놓았지만 나에게 언제 그런 기회가 올 것인지? 기약할 수 없는 시간, 점점 나빠지는 나의 상태, 가족이 눈앞에 밝히고 희망은 멀게만 느껴지던 그때, 간 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식을 위해서 MRI를 찍어보니 10월에 보였던 암세포의 크기에 변함이 없어 암세포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보고 이식을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수술비용 문제였습니다. 생활비와 그동안의 치료비 부담으로 간암치료 중에도 현장에 나가 일을 했는데 증상이 악화되자 저와 아내가 모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감

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만만치 않은 간암 이식비용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세계 새 삶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제 아내의 말처럼 어려운 가운데 늘 우리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인하대병원 사회복지사님, 간호부 간호사님들의 봉사모임인 예지회에서 도움을 주셨고 지역사회 복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는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수술 전 식단은 최대한 저염식이었고, 더욱이 저는 치아가 부실했기 때문에 유동식을 했습니다. 과일과 선식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병원에서는 평균식과 당뇨식을 했습니다.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것이당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는 모든 음식을 익혀서 먹고 있고,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음식의 구별만 있을 뿐 특별히 챙겨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제가 과일을 워낙 좋아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과 김치조차도 익혀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죽음의 고비에서 새로 얻은 인생을 사는 저에게는 이것조차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동네 산책을 하며 걷기 운동을 하며 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긴 하지만 평지는 걸을만합니다.

병명이 무엇이든 간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희망도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매달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기적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귀한 생명을 주신 이름 모를 기증자분과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애써주신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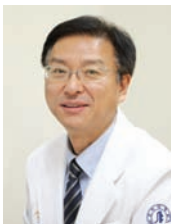
스트레스 호르몬, 복부비만주범!

# 잘 다스려야 날씬하게, 백세까지 건강



만약 당신에게 현재의 생활에서 한 가지만 바꾸면 더욱 날씬해지고 백세까지 살 수 있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떠올릴까? 섭취하는 지방? 건강한 밥상? 운동? 비타민? 모두가 정답이 아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자! 이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장수하는 노인들은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가족, 친지와 따뜻한 교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의 하나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감정 폭발이나 두려움에 직면할 때 보이는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 마음과 몸은 지치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결국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글 · 김용성 교수 | 내분비내과  
•전문분야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진료시간 : 외래 월(오전), 화(오전, 금(오전), 목(오후)  
비만센터 목(오전)  
•문의 : 비만센터 032-890-3360, 2215

## 스트레스는 우리를 살찌게 만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한다. 혈액 내로 단시간에 분비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원래의 농도로 감소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계속하여 높은 농도로 지속되는데, 우리 몸을 고갈상태로 이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몸을 지방을 늘리고, 근육량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코르티솔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며, 체중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더 많은 칼로리를 지방세포로 밀어 넣어 에너지로



저장하기를 원하고, 지방세포의 분해나 산화를 억제하여 지방조직이 늘어난다. 또한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는 코르티솔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많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복부비만이 심해진다. 결국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되고, 면역저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발병하게 된다.

### 스트레스는 뇌에서 탄수화물을 갈망하고 식욕을 증가시킨다.

코르티솔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 증진을 자극하여 음식 섭취가 증가한다. 특히 탄수화물과 짠 음식에 대한 갈망이 폭발한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 설탕, 하얀 밀가루음식, 그리고 짜고 지방이 많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선호한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위안 음식으로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음식은 뇌에서 트립토판을 증가시키고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뇌에서 오피오이드(생리적 마약 성분으로 엔돌핀 성분)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이러한 보상을 원하면서 더 많은 위안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은 폭식 장애 수준으로 진행된다.

### 스트레스는 섭식 행동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스로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면 대개는 달고 짠 음식으로 폭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을 스스로 금지한다. 이것은 다시 스트레스를 더욱 유발 한다. 이런 스트레스 금식형은 평소에도 다이어트를 자주 실행하는 사람에서 많이 보이고, 음식은 영양가가 없는 일부 음식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과 심한 불안증, 소외감 등 정서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극복하려는 본인의 의지나 주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 low-calorie Food

###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식이 섬유소가 풍부한 전곡류, 견과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낮추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 모든 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 좋으며, 연어와 고등어에 있는 오메가 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낮추고 면역을 증가시킨다.

###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습관을 기른다.

운동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체중을 줄이고, 긴장을 해소시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걷기와 뛰기는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체력보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지방이 증가하게 된다. 수면은 스트레스 해소에 꼭 필요하다, 하루에 7시간 정도의 숙면은 피로감을 줄여준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코르티솔이 증가하므로 바람직한 수면 습관을 유지한다. 되도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상황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한 발 물러서서 사안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명상, 요가로 마음을 다스린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다만 분비가 과다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죽음 호르몬(death hormone)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들지만, 뇌는 수축되어 부피가 줄어들고, 면역 기능을 파괴하고, 피부를 노화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중년에서 보이는 과로사의 중요한 원인이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길이 더욱 날씬해지고 백세까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수족냉증

## 따뜻한 날, 손과 발이 얼음장! 왜일까?



정상적 현상과 관련 없이 따스해진 날씨에도 주변 사람들에 비하여 쉽게 손발이 차갑고, 때로 저림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의 색도 변화하는 경우, 우리는 무엇인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



글 · 김창환 교수 | 재활의학과

- 전문분야 :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 진료시간 : 외래\_ 화(오전), 수(오전), 목(오후)  
초음파 신경, 관절클리닉\_ 수(오후)
- 문의 : 재활의학과 032-890-2480

추운 겨울에 손발이 시림을 겪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도 냉방이 강하게 되는 곳에서 한기를 느끼고 손발이 차가워 오는 것은 질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 현상과 관련 없이 따스한 날씨에도 주변의 사람들에 비하여 쉽게 손발이 차갑고, 때로 저림 현상도 보이기도 하고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의 색도 변화하는 경우 우리는 무엇인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수족냉증의 원인

최근에는 주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신경손상이나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주된 양상을 보이고, 버거씨병을 포함하는 말초혈관 질환과 경피증을 포함하는 류마티스 계통의 질환이라는 피부와 관절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40대 이후 많이 발생하는 암과 관련한 항암치료에서도 약제사용과 관련한 말초신경 중 자율신경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하여 신진대사의 기능 저하로 몸의 열 생산능력이 감소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드문 경우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에서 신경, 근육, 혈관, 피부의 모든 기관이 위축되면서 차고 건드릴 수도 없는 통증이 손, 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업장에서 근로자 중 진동공구를 사용한 후 레이노드씨병이 발생하여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족냉증의 진단

혈관질환 환자들은 흔히 몇 년째 겨울만 되면 유난히 손발이 시리고 저릿저릿한 통증까지 오는 수족냉증(手足冷症)으로 시달리다가 병원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춥지 않다고 하는 날도 자신의 손과 발은 얼음장 같습니다. 야외 활동을 나가는 때는 양말을 두세 겹씩 겹쳐 신고, 면장갑에 가죽장갑을 더 끼워야 합니다. 이 경우 손·발목의 혈압을 비교하거나 초음파 혈관 검사 등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내분비 질환의 경우 내분비내과에서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피증을 포함하는 류마티스 계통의 질환에서는 혈액, 면역검사, 피부 조직 검사 등을 통해 기저 질환을 진단하고 동반되는 합병현상으로 발생하는 혈관 및 신경질환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신경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족냉증은 주로 가는 신경의 손상에서 발견됩니다. 말초신경은 크게 굵은 신경과 가는 신경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가는 신경의 기능 이상은 사지에서 온도측정 및 열 조절에 의한 발한기능, 자율신경 신경전도 검사 등을 사용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특히 본원 재활의학과 신경생리 검사실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조절에 의한 발한기능 평가를 통해 자율신경병(소섬유 신경병)을 진단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수족냉증의 예방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모든 경우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흡연자는 금연자보다 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당뇨 등 내분비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유지하는 것은 비만과 대사성 질환을 비롯하여 암환자, 다발성 말초신경병에서도 신체기능의 유지와 대사기능을 높여주어 수족냉증을 막아줍니다. 셋째, 음주는 아주 적은 양(포도주 1잔, 소주 1잔 정도)에서 동맥경화증을 비롯하여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음주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율신경을 포함하는 말초신경의 병을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장에서는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레이노드병을 막기 위해 수시로 손발의 냉증을 검사하여 직무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족냉증의 치료

암이나 노화를 포함하는 대사성의 질환에서 주로 권하는 치료는 운동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 땀을 흘리며 심장이 두근거리도록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관절 질환도 많으므로 적절한 운동의 선택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제공되는 항암투약이나 당뇨, 갑상선 등 질병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혈관질환의 경우 내과적인 약물 복용과 함께 필요하면 외과적 수술이나 스텐트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율신경절의 차단술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반되는 저림, 이상감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세포의 전해질 이동 경로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소량의 항우울제 등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로 심한 면역기능의 이상이나 자가 면역질환들에 의하여 수족냉증이 생기는 경우 면역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는 때로 혈관 확장제를 통해 신경병을 개선한 예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흔히 처방 없이 복용하는 순환개선제들이 뚜렷하게 질병의 상태를 호전시킨 것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수족냉증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와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Vision 2020

## 2020 비전 선포식 개최 지속적 성장을 통한 글로벌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

2012년 5월 27일 개원 16주년을 맞는 인하대병원은 5월 25일 기념식과 더불어 202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국내 TOP 7, 인천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최고수준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신관건립과 5개 특성화 전문센터 육성과 의료 기술 선도병원이 되기 위한 “최상의 진료”와 “창조적 연구”가 결합된 성장모델 구현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중 핵심사업으로 약 2,500억을 투입하는 신관은 약 1만 8,512㎡ 부지에 600병상 규모로 지난 4월 16일자로 인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2016년에는 전문진료센터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1,500병상 규모의 초대형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인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고령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암센터, 심장·뇌·혈관센터, 류마티즘·관절센터 등을 신설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 날 인하대병원은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에 이어,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와 더불어 ‘옴의료 서비스로 존경 받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였고, 슬로건으로 A-PRO+를 공표하였다. A-PRO+는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전진한다는 의미와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는 의지, 그리고 고객의 행복을 위한 ‘최고 수준의 A+프로’가 되자는 도전정신을 함께 담은 비전 핵심 슬로건이다.

박승립 의료원장은 “비전 선포식은 내부적으로 조직의 기본가치와 지향점을 확립하여 내부구성원에게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 발전 로드맵을 천명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를 통해 내부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5월 개원한 인하대병원은 세계 최초 눈 수정체섬유 인공배양 성공, 세계 최초 루푸스 진단 방법 개발, 국내 최초 외국인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성공, 단일성 성체줄기세포 분리기술 특허 획득(등록번호: 10-0802011), 최근 조직형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 성공 등의 성과와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 연구사업을 수주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 전 부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획득과 국내 첫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전한 의료와 정직한 병원임을 인정받고 있다.





2020 비전 선포식

## 비전 | Vision

으뜸 의료서비스로 존경받는 병원

**A** CE of Medical Services

**P** atient-oriented Services →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R** esponsibility-based Services → 책임으로 봉사

**O** utcome-balanced Service → 공익을 위한 성과창출

**+** Sustainable Happiness → 지속 가능한 행복추구

Vision Symbol



인하대병원 신관 증축 조감도



## 2012 이종욱펠로우십 장기연수사업

# 흰 가운을 입은 외국인들을

# 보셨나요?



글 · 김필립 주임 | 교육수련부

### 흰 가운을 입은 외국인들을 보셨나요?

과거에도 외국 의료인의 연수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의료인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병원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관하는 이종욱 펠로우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욱펠로우십이란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수장이었던 전 WHO 사무총장 故 이종욱 박사의 뜻을 기리는 개발도상국 해외 의료진 연수교육사업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ODA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중 하나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에서 원조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주는 수원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회가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이 주는 의미는 해당 국가에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일시적인 원조가 아닌 교육을 통해 해당국 국민이 자생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것에서 근본적인 의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원조이자 사회공헌활동일 것입니다. 인하대병원은 해당 이종욱펠로우십 추진 입찰 경쟁에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들과 경쟁하여 큰 점수 차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베트남 의사 3명과 중국 의사 2명이 연수 중입니다. 1년 동안 인하대병원의 가족으로 함께 지낼 예정이며, 올 6월에도 중국 의사 4명과 우즈베키스탄 의사 2명이 새로운 가족으로 6개월간 연수 예정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인하대병원이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인하대병원은 인하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가칭)의 첫 단추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대한항공 두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현지 협력기관으로는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과 모자보건복지재단인 우촌재단,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을 교육하는 교수진을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전파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의사 교육에서 점차 간호사, 의료기 사 등 전 의료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0년 후, 우리나라가 이루었던 발전의 기적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하대병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 라는 대한민국 ODA를 인하대병원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를 배우러 오신 외국 의료진들을 인하가족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세요.



◀ 2012 이종욱 펠로우십 전체 연수생 입교식  
▼ 재단·병원 우즈벡 사업 진행 MOU 체결



## 암센터 이식센터 Cancer BMT Center



인하대병원 김철수 골수이식팀

### 인천지역 최초 '조직형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 성공

**부모자식간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 조혈모세포이식술 중 최고 난이도 조직형일치 골수 기증자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 제시**

인하대병원 김철수 골수이식팀이 지난 4월 16일, 13세 여아를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 을 성공했다.

이번에 진행된 부모자식간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은 기증자와 환자의 골수 조직형이 절반이나 다르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 중 가장 하기 힘든 시술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시도하였으나, 대한민국, 이태리, 일본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성공한, 관련 분야 최고 난이도의 시술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일부 종합병원에서만 성공사례가 있으며, 최근 인하대병원 김철수 골수이식팀이 부친의 조혈모세포를 성공적으로 자식에게 이식함에 따라, 인천지역 최초의 조직형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에 성공한 병원이 되었다.

김철수 교수는 "이번 수술성공으로 세계적인 첨단병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동시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에 필수적으로 여겨져 왔던 조직형 일치 기증자가 없더라도 부모로부터의 조직형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수행능력을 보임으로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에 있어 조직형 일치 기증자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술성공은 환자들 대부분 부모나 자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조직형 일치 기증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이 가능함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 대부분에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이 가능하다는데 본 시술의 성공이 시사하는 임상적 의의가 있다.

환아의 부모는 "치료받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고 전했다. 또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한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열정적이고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인간적인 진료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철수 교수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전문가로서 대한조혈모세포 이식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인하대병원 골수이식팀은 혈액종양내과 김철수 교수, 이현규 교수, 임주한 교수, 박영훈 전임의,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남정현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교수, 김현정 교수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인하대병원 암센터 골수이식센터 ☎ 032-890-2580

# 농병동의 시간



## 세심한 배려덕에 어깨 '으쓱'

세계로 도약하는 인하대병원과 전 가족 여러분께 신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귀 병원에 입원 중 감동을 받아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환자는 예전에 뇌실질 내출혈로 시술 받으며 기관절개시술을 받은 후 음식물 섭취에 고충이 있었습니다. 연하보조식(연식) 식사가 필요함에도 입원 중인 타 병원에서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움을 무시하고 다진 음식으로만 제공받아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입원 중인 병원의 전문의가 복부에 관을 넣어 식사를 하는 시술을 끈질기게 권유해서 퇴원한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 귀 병원에 입원 중 영양팀 홍기연 영양사 선생님의 병실 방문상담을 받으면서, 그 동안 환자 식사관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환자를 오랜 세월 고통을 받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연하보조식 식사관리(자세, 요령, 주의사항 등)가 담긴 안내자료를 주시며 세심한 배

려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환자 간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 병원에서는 식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던 터라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환자 보호자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홍기연 영양사 선생님을 모범직원으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인하대병원에 입원 중에 보니, 환의 및 침대시트 보관함을 병동간호사실 앞에 설치하여, 필요 시 자발적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배려가 느껴져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소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수년간 다른 병원에 입원 중 환의나 시트가 필요할 때마다 간호사로부터 물품지급 초과한도 등을 운운하면서 눈치를 줄 때는 애꿎은 환자를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고향 인천에 국제적인 대형모범병원 인하대병원이 있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으뜸가는 의료계 선두주자로 나아가시길 굳게 믿습니다. 인하대병원의 무궁무진한 발전과 빛난 영광을 빕니다.

2012년 2월 13일  
환자 가족 문영환 드림



▲문영환님이 쓴 편지글



## 전직 성우 김경숙 씨의 ‘목소리 기부’ “성우시절 고운자태는 아니지만 목소리와 마음은 고와 졌어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의 실존모델로 유명한, 대전의 56년된 빵집 **‘성심당’** 의 대표 임영진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누구나 잘하면 좋은 일 하겠다”** 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 좋은 일 못 하고 죽는다. **“있든 없든 지금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고...

디스크 파열 직전에 수술을 받아 비록 몸은 성치 않지만, 타고난 목소리로 이웃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파하는 김경숙 씨는 별 가진 게 없는 지금의 자리에서 작지만 즐거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은쟁반의 옥구슬이 이런 소리일까 싶게 미성(美聲)의 소유자다. 젊은 시절에는 동양방송(TBC) 성우로 입사해서, CF광고 녹음으로 전성기를 구가한 적도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광고방송(허버허버시장, 신신파스A, 주간중앙, 태화고무장갑 등)이 TV와 라디오를 연일 장식했다. 친정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신랑과 결혼했지만, 10년 만에 이혼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딸과 아들의 양육을 도맡은 그녀에게 전 남편은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여성법률단체의 지원을 받아 법적 소송 끝에 아이들 양육비를 간신히 받아낼 수 있었다.

그 무렵, 본격적인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이혼 후 1987년 YWCA가 주관하는 간병인교육과정에 참여한 뒤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간병인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세브란스병원 내과병동에서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환자의 간병을 11년간 맡은 일이 병동에서도 화제가 되어 유명인사였다고 한다. 간병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보다 보호자나 가족

들이 경우가 많다. 김경숙 씨가 처음 맡은 뇌졸중 환자는 부인이 워낙 까다로워서 간병인이 자주 교체되다가, 김경숙 씨가 간병을 맡은 이후로 11년간을 내리 돌본 경우였다. “지금 생각해도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요.” “그때는 봉사, 그런 생각보다는 오로지 지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산다는 일념으로 참지 못할 게 없고,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던 거죠.” 15년간 간병인 생활로 30여명의 환자를 돌본 김경숙 씨는, 그 덕분에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꾸릴 수 있어 고맙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일에도 겁이 없던 김경숙 씨에게 2002년부터 몸에 이상이 오더니 하루가 다르게 다리가 아파왔다. 게다가 아들이 다단계 사기를 당하면서 그간 모은 돈을 줄지에 날렸다. 결국 단칸방을 전전하다 아이를 돌보는 부업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서울 번두리에 살던 시절부터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깊어져 가는 딸의 정신병력과 아들의 사업실패로 길거리로 나왔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성우생활을 했음에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목소리에 녹이 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녀에게 목소리는 가장 소중한 자부심이었다. 목소리를 다듬는 노력을 하고 싶





어, 용기를 내어 용현1동 노래교실 문을 찾았는데, 그게 김경숙 씨에게 제2의 인생을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김경숙 씨의 노래실력과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딜 가나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 당시 신축한 송의종합복지관에서 개설한 웃음치료교실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치유하는 청량제가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버이날이나 크리스마스 행사 때 시 낭독을 도맡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복지관과 교회 등을 다니며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녀가 낭독을 하면 장내는 온통 눈물바다를 이룬다. 또, 복지관에 나오지 못하는 재가노인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지방여행을 떠나 행사 진행을 맡아 외로운 노인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하고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1인 극으로 서영춘(전 코미디언)의 개그와 공옥진의 곱사춤을 선보여 좌중의 배꼽을 쥐게도 한다.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38세의 딸은 1년 중 수개월을 병원에서 지내고 있지만,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아 노래와 춤에 능하고 아들은 지하철 인쇄방송 성대모사에 탁월해서 주위사람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그 또한 다행이라 생각하는 김경숙 씨. 젊은 시절, 간병인을 할 때는 비록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훗날 몸이 아픈 환자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 참 좋겠구나 마음먹었던 일들이 이제야 조금씩 실행되는 것 같아 즐겁다고 말한다. 중환자의 목욕, 석션, 튜브공급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병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봉사를 꼭 해보고 싶다는 그녀는 어린아이를 돌보고 다루는 데도 전문가 수준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는 대소변을 치

우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시낭독이나 노래 봉사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한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쭈그러 앉거나 남의 시선을 피해 숨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 기만히 있으면 더 초라해지고 다운 될 뿐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될수록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좋으니 배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하며 뛰어 다닌다는 김경숙 씨. 집에 기만히 앉아 있는 것과 자신처럼 뛰어다녔을 때의 변화는 엄청나다고 한다. “백수는 정보에 밝아야 밥도 얻어먹고 일거리도 얻잖아요! 잘 찾아보면 무료강좌도 많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김경숙 씨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았지만, 웃음치료와 노래교실, 라틴댄스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관 교육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단한 짐을 덜고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자의 삶에 들어섰다.

젊은 날 성우시절의 고운 자태는 많이 변했지만, 목소리와 마음은 더욱 고와졌다. “단체로 먹을 간식을 살 때면, 어떤 분은 가장 싼 걸로 사라고 하지만, 저는 제일 좋은 걸로 살려고 노력해요. 가장 좋은 걸로 함께 나눌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라는 그녀의 소박하고 따스한 진심은 술한 역경을 거쳐온 그녀의 목소리에 진정성을 불어넣었고, 듣는 이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가는지도 모른다.

- ※ 글 · 권영선 |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 032-830-1004
- ※ 송의종합사회복지관 (송의2동) 웃음치료, 노래교실 ☎ 032-524-5016

▼ 미스코리아 복장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 재가노인 단체행사서 서영춘 분장으로 1인 극을 선보이는 김경숙 씨



## 헌신적 마음과 응원은 성공적 골수이식으로~

베트남의 최고 명문인 호치민대학 화학공학과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정부 초청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인하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재원 탄타이 씨(24세).

후학을 양성할 교수가 될 꿈을 안고 있던 그는 1년 여의 한국어 연수기간을 마치고 대학원 입학을 앞둔 금년 1월 초 갑작스런 백혈병 진단을 받고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타향에서 가족 없이 항암치료의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지만 한국어 연수과정 중 알고 지내던 학우들은 교대로 병상을 찾아와 그의 투병을 도와주었다. 어려운 형편에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던 터라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함께 공부하던 학우들이 후원회를 조성하여 병원비를 모금하고, 지역의 복지기관도 동참하여 병원비를 지원하였다.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몇몇 분들도 한 번 본 적 없는 탄타이 씨를 위해 기꺼이 성금을 기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오신 어머니가 병상을 지키고 있다. 탄타이 씨가 중학교때 홀로 되어 어려운 형편 중에 남매를 키워 오신 어머니에게 너무도 자랑스럽고 든든한 아들이었기에 누구보다 아들의 투병 사실이 감당할 수 없었지만 “네가 살려고 한국에 오게되었구나” 하며 오히려 아들 탄타이 씨를 위로하고 있다.

길고도 힘겨운 투병 기간을 거치면서 병원비 마련도 걱정이었지만 조직형이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던 중에 어머니와의 골수이식수술이 결정되었다.

너무도 닳은 이들 모자의 성공적인 골수이식수술이 기대되어지는 건 탄타이 씨의 회복을 위해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을 내어 병상을 함께 지키며 모금활동을 해 주며, 고향의 향수를 달래줄 베트남 음식을 사다 주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학우들과, 여러 행정적인 절차들을 신경 써주신 인하대학교 관계자분들, 얼굴도 모르지만 치료에 써 달라며 치료비를 기부해 주신 분들과 이모저모의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모두의 사랑과 수고가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의 응원을 힘입어, 머지않아 치료를 마치고 대학 교정을 누비며 학문에 열중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탄타이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Kinh mong manh khoẻ! (건강하소서)



\*베트남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온 탄타이 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상담 및 후원 문의: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원공주 사회복지사 ☎전화 032-890-2870

# Q & A

## 콜레스테롤 합성이 많은 저녁에 복용하라~

**Q :** 고지혈증 약 중 Atorvastatin과 Simvastatin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서 쓰게 되며, 복용시간이 다른 이유(Simvastatin: 저녁, Atorvastatin: 제한없음)는 무엇인가요?

**A :** 고지혈증은 어떤 종류의 지단백 대사 이상이 있는가에 따라 치료 원칙이 결정되며, LDL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농도에 따라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럽 심장 학회, 유럽 동맥경화학회의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혈증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스타틴이 일차 선택약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Atorvastatin과 Simvastatin 모두 스타틴계열 약물로서 동일하게 HMG CoA 환원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저해하여 총콜레스테롤과 LDL을 저하시킵니다. 다만 Simvastatin은 비활성형의 약물로서 간에서 CYP450효소에 의해 대사되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반면, atorvastatin은 활성형 약물입니다. 복용시간이 다른 이유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저녁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므로, 저녁에 투여시 statin계 약물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기에 생체리듬을 고려하여 Simvastatin은 저녁 시간에 투여합니다. 그러나 반감기가 긴 atorvastatin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투여해도 약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atorvastatin의 반감기: 14시간, Simvastatin의 반감기 2~3시간)

**Q :** 평소 고혈압약만 먹다가 뇌경색으로 인해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데 고지혈증약을 처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미국 뇌졸중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후에 스타틴계 고지혈증 약물복용이 뇌졸중의 증상을 개선시키며, 사망률뿐 아니라 기능적인 손실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스타틴의 지질 저하작용 이외에 혈관확장 작용, 항혈전 작용, 항산화 작용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 보호, 신경 재생 효과를 통해 뇌출혈로 인한 혈관 손상, 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며, 특히 뇌졸중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 억제 등 항염 작용도 발휘합니다. 스타틴 약물이 혈관 뿐 아니라 신경 조직에도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낸다면 뇌혈행관문(BBB)을 통과하는 약물이 유리하며, 특히 스타틴계 약물중 Simvastatin이 지질 친화도가 높으므로 통과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된다 된다 된다 **희망**이 된다



## 우리아이 치아까지 지켜주는 무배당 LIG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내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행복한 생각으로  
가족의 행복 자람이가 되겠습니다

### 무배당 LIG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 ▶ 태아의 안전도, 노후의 건강도 든든하게 100세까지 보장가능
- ▶ 보험기간 연장을 통해 30세 이전 보험 만기시에도 100세까지 보장가능
- ▶ 출산위험, 어린이 CI, 후유장애, 질병, 암, 골절 등 자녀의 모든 위험을 대비한 다양한 보장가능 (해당 특약 가입시)
- ▶ 만일의 경우 대비 부모사망시 유자녀 학자금 지급 (해당 특약 가입시)
- ▶ 다자녀가정 할인/출산할인 제도로 최고 5% 보험료 할인가능
- ▶ 영구치와 유치까지 보장하는 업계 최초 키즈덴탈보장 신설 (해당 특약 가입시)



### 보험가입 부가서비스

- ▶ 작명 서비스(베이비네임스) **최고 80% 할인**
- ▶ 홈케어 서비스(인터파크 HM) **최고 66% 할인**
- ▶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할인 입장**

\* 본 서비스는 당사 및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으로

일대세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 암 치료 전문병원, 인하대병원 위암, 대장암, 간암 모두 '수술 1등급'

5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암, 대장암, 간암의 수술실적 (2010년 기준)이 있는 전국 302개 병원을 분석하여 수술사망률이 낮은 순으로 등급을 발표했다. 3가지 암 모두 1등급을 받은 병원은 16.9%로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51곳이었다.

심평원은 수술받은 후 30일 안에 사망할 확률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본원은 위암, 대장암, 간암 모두 수술 1등급을 받아 명실상부한 암 치료 전문 병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JCI 재인증 추진 선포식으로 글로벌 의료기관을 향한 의지 다져 ●

4월 3일, 인하대병원은 4월 월례조화와 함께 JCI 재인증 추진 선포식을 실시했다. 지난 2010년 7월 3일 인증을 받은 인하대병원은 인증 이후 안전한 진료시스템 구축, 외국인 환자 수 증가 등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교직원 모두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다. 인하대병원은 향후 지난 1,193개의 평가기준을 넘어 1,218개에 달하는 더욱 엄격해진 JCI 재인증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인하대병원은 2013년 6월에 시행될 본 평가를 위해 2012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할 Mock Survey를 시작으로 긴 여정에 나선다.



### 인하대병원, (사)한국이민재단과 업무협약 - 해외환자 유치 사업 가속화 ●●

인하대병원과 (사)한국이민재단은 지난 4월 10일 해외환자 유치 사업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해외환자 유치와 진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국내 Top 병원 브랜드 제고와 통합 마케팅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되었다. (사)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 허가 제한 외국인, 이민다문화 행정지원, 국제교류지원을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2010년부터 의료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중국지역 의료관광사업이 특화되어 있다.



### 인하대병원, 중국 청도인민병원과 국제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부속합의 체결 ●●●

4월 12일, 인하대병원과 중국 청도인민병원은 중국청도인민병원 내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본 합의에 따라 인하대병원과 중국청도인민병원은 소화기내과 특성화 전략 및 내시경술 서비스 강화로 수익성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수의료진 교류 확대, 건강검진사업 강화 등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해졌다. 인하대병원과 중국청도인민병원은 2008년 12월 4일 중국청도 인민병원 내에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지난 3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 해외의료관광산업의 표본을 미련하고 있다.





## 인하대병원, 홍성의료원과의 업무협약체결 ●

4월 12일, 인하대병원은 홍성의료원(충남 홍성군 소재)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양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중환자 전원과 장기환자 전원을 통한 병상 회전을 제고 및 진료의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인하대병원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총 79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서해권역 중심병원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 인하대병원 윤정호, 오남식 교수팀,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2012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선정 ●●

치과 윤정호 <사진 왼쪽>, 오남식 <사진 오른쪽> 교수팀이 'BMP2/VEGF 유전자 형질도입 인간 치주인대유래줄기세포와 블록형 운반체에 의한 입체적 골 조직 재생 효과 연구'라는 주제로 제안한 연구과제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가 지원하는 '2012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과제'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윤정호·오남식 교수팀은 POSTECH 및 우리들생명과학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로부터 연간 약 6천만 원 규모로 3년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줄기세포와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조직 재생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며, 골 형성 성장인자 분비를 유도한 인간 치주인대유래줄기세포주 확립 및 블록형 운반체를 이용한 골 조직 재생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3차원적인 골재생에 대한 기초 학문적 지식을 확보할 예정이다.



## 인하대병원, 유타대 의무부총장 초청 강연 및 글로벌 연구중심병원 방안 구축 ●●●

4월 9일, 인하대병원은 유타대 의무부총장 Vivian Lee 교수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 진행과 함께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을 향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유타-인하 DDS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으며, 연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세부적인 실무방안과 향후 유타대-인하대병원 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Vivian Lee 유타대 의무부총장은 "유타-인하 DDS의 운영상태는 상당히 훌륭했으며, 이번 방문으로 상호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인하대병원과 유타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보다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유대관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인하공업전문대학과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

5월 14일, 인하대병원은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상호 고객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약속하며 협약체결을 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본원의 적정진료관리실(Q팀)은 평생교육원의 교육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인력 자문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금수 진료부원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금년 인하대병원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하공업전문대학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청도시 아동병원 의료진 대상 팸투어 실시 ●**

4월 20일, 인하대병원 마케팅팀은 청도시 아동병원 의사 및 의료진 15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인하대병원의 선진의료시스템을 견학하러 온 이번 방문단은 본원의 국제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둘러보며 향후 인하대병원과의 해외의료관광 협력을 약속했다.



**인하대병원, 한국지엠과 함께 소아암 환아 대상 진료비 및 헌혈증서 전달 ●●**

5월 15일, 인하대병원은 한국지엠과 함께 소아암 환아 대상 진료비 및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진료비와 헌혈증서는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헌혈 할 때마다 회사가 2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기금과 헌혈증서로, 인하대병원 소아암 환아 4명에게 희망의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하대병원은 최상의 진료로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있다.



**제1회 인하대병원 의료기사 연합상조회 학술대회 개최 ●●●**

4월 26일, 인하대병원은 의료기사연합상조회 주최로 '제1회 인하대병원 의료기사연합상조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간 친목도모 및 자기개발을 통해 병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박승림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저탄소 녹색병원을 향한 첫걸음 '저탄소 녹색생활 선포식' ●●●●**

3월 29일, 인하대병원 핵의학과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병원을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선포식'을 실시했다. 인하대병원 핵의학과에서 시작된 녹색생활 친환경 병원 운동은 [인간과 자연이 숨쉬는 인하대병원!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핵의학과]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폐기물, 방사성 오폐수의 감축에서부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물 아껴쓰기 등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인하대병원 내 타 부서로 전파되어 장기적으로는 인하대병원 전 부서가 합심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으로 지역의료인 건강 챙겨 ●●●●●**

3월 18일, 인하대병원은 지역 의료인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역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을 진행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바쁜 스케줄과 많은 업무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개원의 및 가족을 대상으로 했기에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검진은 27개 의원 총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면내시경 및 PET-CT 등 맞춤형 검진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인천 만석동 쪽방촌 의료봉사 실시**

4월 21일, 인천시 동구 만석동의 '쪽방촌'을 찾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성 혈관질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Yes! 인천천사봉사단 연합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단체는 인하대

병원 인하사회봉사단, 사랑의 약손봉사단, 시설관련 봉사단 등 19개 단체와 회원 약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의료봉사, 마사지, 도배 및 장판교체, 자장면 무료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하대병원, 제12회 인천국제마라톤 '의료지원' 성료 ●

4월 1일,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실시한 '제12회 인천국제마라톤 대회'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늘 현장에서 함께 숨쉬고 땀 흘리는 봉사단은, 1만여 명이 참가한 국제규모의 마라톤 대회 의무 상황실을 운영하며, 혹시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하며 안전하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 마라톤 동호회 21명은 본 대회에 참가하여 전원이 완주하며, 단합을 과시했다.



### 인하대병원 원무팀, 인천 해성보육원, 강화도 고려산 찾아 봉사활동 실시 ●●

4월 7일, 인하대병원 원무팀은 인하대 후문에 위치한 '해성보육원' 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였다. 원무팀은 이날, 보육원의 주변환경정리와 봄맞이 잡풀제거를 하며 소중한 땀을 흘렸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팀원이 교대로 10명 이상 참여하여 봉사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4월 11일에는 강화도 고려산을 찾아 자연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2012년 혁신과제 중 하나인 봉사시간 8,000시간 목표로 지역사회 봉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유방암학회와 함께 유방암 환우 누드수목화 전시회 개최 ●●●

인하대병원은 한국유방암학회와 함께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병원 지하1층 문화광장에서 '유방암 환우 누드수목화 전시회' 를 개최하였다. 본 전시회는 유방암 환우를 대상으로 암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자 마련되었다. 유방암이라는 인생의 큰 충격과 고비가 있었지만,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은 그들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 인하대병원, 어린이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로 병동에서 꿈꾸는 동심 위로 ●●●●

인하대병원은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병동의 어린 환우들과 보호자를 위로했다. 특히 5월 4일에는 인하대병원과 중근당, 그리고 국립오페라단이 힘을 모아 '어린이 오페라 공연' 을 실시했으며, '나는야 꼬마 파티쉐', '우리 가족 포토액자 만들기', 그리고 인하대병원 임원진의 '사랑의 책 선물 전달'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병원에서 지내는 꿈 많은 동심들에게 쾌유의 희망을 선물했다.



###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 (사)건강사회운동본부로부터 감사장 수상 ●●●●●

3월 30일,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은 (사)건강사회운동본부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사)건강사회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에 헌신적인 지원과 아낌





없는 협조로 큰 힘이 되었으며, 본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기에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는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발족하여 지난 2008년부터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환경, 금연, 디문화가족 및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정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의 건강을 위한 민주시민 의식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사단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순수민간 단체이다.

**재활의학과 김명중 기사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명중 기사장(물리치료사)이 지난 5월 4일, 63빌딩에서 진행된 '대한병원회 제 53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명중 기사장은 인하대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환자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건강관리법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 18년간 회원 및 임원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정무이사로 물리치료사의 권익보호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성민 전공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전공의 우수연제상' 수상 ●●**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86차 대한이비인후과 춘계학술대회>에서 본원 이비인후과 박성민 전공의가 '침샘내시경 보조 구강내 타액선 결석제거술의 유용성 및 안전성' 이라는 연구 주제로 전공의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주제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파랑새 공개강좌 개최**

유방암 환자들에게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랑새 회원분들도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파랑새 회원들이 강력한 요구로 지난 4월 17일 가정의학과 이연지 교수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다이어트' 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시행했다. 파랑새 회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귀중한 정보를 얻었으며 식생활과 운동에 대해서도 열띤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의에 앞서 초대 회장님이신 최정원 님이 활동하는 풀빛 여성합창단이 합창으로써 봄소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민병통치약인 웃음을 선사하고 친목을 다지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다음 행사**

● 6월 - 양재천 걷기 대회 예정

※ 추후 여성암센터 홈페이지 통해 공지예정





| 홍보 영상 |

#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칭의

2012. 4. 14



출연: 김철우 교수/알레르기내과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내용: 꽃가루 알레르기의 이해와 치료

2012. 4. 24



출연: 이연지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남인천방송  
'생활정보 리빙유'  
내용: 환절기 건강관리

2012. 3. 30



출연: 황건 교수/외과  
프로그램: YTN '박상원의  
Why & How'  
내용: 귀걸이의 위치에 따른 귀 건강

2012. 4. 1



출연: 김형길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MBN  
'트로트가 간다'  
내용: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

2012. 4. 2



출연: 조영업 교수/외과  
프로그램: 채널 A  
뉴스쇼 - A 타임  
내용: 감성선암의 이해와 치료

2012. 5. 7



출연: 김명구 교수/정형외과  
프로그램: MBC  
'생방송 오늘아침'  
내용: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

2012. 5. 8



출연: 김규성 교수/이비인후과  
프로그램: 남인천방송  
'생활정보 리빙유'  
내용: 올바른 귀 건강관리

2012.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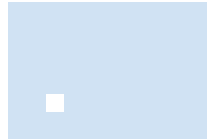
출연: 김나래 교수/안과  
프로그램: 남인천방송  
'생활정보 리빙유'  
내용: 눈의 건강관리법

2012. 5. 19



출연: 나정호 교수/신경과  
프로그램: 메디컬TV  
'메디컬뉴스'  
내용: 중장년층의 노인성 질환

2012. 5. 21



출연: 박희권 교수/신경과  
프로그램: JMBC  
'생방송 오늘아침'  
내용: 성인병과 뇌졸중

## 친절직원 소개

### 4월 친절직원

#### 서명순 간호사



엄마같은 포근함과 편안함으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서명순 선생님. 서명순 간호사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 5월 친절직원

#### 영양팀 홍기연 선생님



해맑은 미소가 아름다운 영양팀 홍기연 선생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영양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환자분들이 인하대병원을 믿고 진료에 임하기 위해서는 친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 Global INHA

이번호는 외모에 고민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안내 및 일정을 계획하는 상황에 필요한 영어회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pression

-> Then I will schedule you for an otoplasty.  
그러면 제가 당신의 귀 성형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Episode

**PATIENT:** As you can see, my ears stick out too much.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제 귀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DOCTOR:** Yes, I noticed that.

네. 알고 있습니다.

**PATIENT:** I want to know if you can do something about it.

My self-esteem is very low thanks to these ears.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귀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너무 없습니다.

**DOCTOR:** I see. Then I will schedule you for an otoplasty.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의 귀 성형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PATIENT:** What is that?

귀 성형술이 무엇입니까?

**DOCTOR:** It is a surgery to change the appearance of one's external ears.

바깥쪽 귀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입니다.

**PATIENT:** Will it affect my hearing ability?

그 수술이 제 청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DOCTOR:** Not at all. Don't worry. It's completely safe.

전혀요. 걱정 마세요. 매우 안전합니다.

★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본의 업서 또는 [inhapr@inha.com](mailto: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http://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2년 4월 30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312명	1,187,257,798원	957,117,82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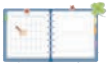
◎ 기부자 현황 | 2012년 3월 14일 ~ 2012년 4월 30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12. 04. 09	김철우	20,000,000	알레르기내과 교수(완납)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li> <li>- 참가비 7만원</li> </ul>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li> <li>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li> <li>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li> </ul>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li> <li>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li> <li>-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li> </ul>	6/14(목), 7/11(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장암의 이해</li> <li>대장암 환자의 영양</li> <li>-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li> </ul>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 공개강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강사	장소
2012. 06.14(목) - 오전 11시	소아성장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	인천 신세계 백화점 내 신세계 아카데미
2012. 06.19(화) - 오후 1시	중년여성의 부인과 질환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	
2012. 06.25(월) - 오후 2시	산만한 아이 바로키우기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	

●문의 : ☎ 032-430-1501



###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2. 05. 26 ~ 2012. 06. 09	물그림회 기획전	인천물그림회	2층 갤러리
2012. 06. 09 ~ 2012. 06. 23	김민경 개인전	김민경	2층 갤러리
2012. 06. 23 ~ 2012. 07. 07	임남숙 개인전	임남숙	2층 갤러리
2012. 07. 07 ~ 2012. 07. 21	김명옥 개인전	김명옥	2층 갤러리

●문의 : 홍보팀 (☎ 032-890-2608)



### 문화행사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장소
2012. 06. 22(금) - 오후 3시	어린이 희망음악회	한국예술종합학교	1층 로비

●문의 : 홍보팀 (☎ 032-890-2603)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하대병원 암진료안내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사이버나이프센터 ◆ 비만센터 □ 여성암센터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8:30~09:30 서비스진료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	갑상선, 당뇨병, 비만	월, 화, 목	목	여성암센터 갑상선 조직검사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김상선, 당뇨병, 뇌허수체	화, 수, 목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화, 목, 수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김소현	*	갑상선, 내분비, 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수	화, 금		
		신석환	*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조영업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화, 목	월, 화, 목, 수		
	외과	허윤석	*	위, 위암, 소화기외과	(화, 수)	화, 목			외과 (여성암센터) 이비인후과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월, 수	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영모	*	갑상선,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이문희		해외연수(2012. 5 ~ )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현인영	*	갑상선암,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8:30~09:30 서비스진료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권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방병욱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경래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월, 수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외과	최선근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화, 목	금			유방암 (여성암센터)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월, 화, 목		
		이문희		해외연수(2012. 5 ~ )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월, 목		
		이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수, 목) (금, 목)	(월,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수, 목) (금, 목)	(월, 화)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화, 목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서비스진료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	이비인후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목	월, 목				송은섭	*	부인과종양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수, 금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박정우	*	부인과종양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종양내과	김우철	*	종양학, 혈액학	월, 수	월, 수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이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이문희		해외연수(2012. 5 ~ )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혜·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돈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금	화, 금(2)	금요일: 전담진료		
		정 석	*	담도, 췌장암, 담석증, 담도확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윤상민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결석	화, 금	화, 금(3)	금요일: 전담진료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결석	월, 수	수, 금(4)	금요일: 전담진료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이문희		해외연수(2012. 5 ~ )	월, 금	화, 금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이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수, 목(1,3)	() : 주별 진료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종양학, 혈액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곽승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금	수, 목(1,3)			김우철	*	종양학, 혈액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류정선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금	수, 목(1,3)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진성진료의학	수, 목	월, 화, 목, 금,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남해성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수, 금	월, 화, 목, 금, 수										
	흉부외과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 목	목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갑상선,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월, 화, 목	
		김정택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목	월, 목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언어(편도X)	금	화, 금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월, 목, 수	수,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종양학, 혈액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흉부 관련암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수)	목,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흉부 관련암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 목	목		척추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신경과, 뇌, 신경, 뇌종양, 신경안면신, 뇌신경, 뇌	월, 수, 목	월, 수	▲ 뇌종양, 안면경련증, 심장신경클리닉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목	월, 목				김우철	*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금	화, 금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월, 목, 수	수,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연삼	*	폐, 식도질환, 다한증, 흉곽기형	수,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수)	목,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혈액암	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정형외과 및 골육종	정형외과	김준수	*	골종양, 인공관절성형술,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수)	목, 수				이동주	*	중앙,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권대규	*	중앙, 소아정형, 뇌상비, 이상	화	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월, 금		
	소아암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박근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금	심장혈관센터	신장센터 (☎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금	월, 화	(☎2440~1)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대혁	*	부정맥, 심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신장이식클리닉	김문재	*		수				
	신성희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화, 목	목, 금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김수한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목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목	오후진료: 13:00~16:30 오전진료: 10:30~2:00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목	08:30~09:30 서바스진료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이문희		해위연수(2012. 5 ~ )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내시경센터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이도형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2540~1)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천자확인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박영훈			수	월, 목, 금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목	월, 목		암센터 (☎2580)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정 석	*	담도암, 췌장암, 담낭, 췌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이문희		해위연수(2012. 5 ~ )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수, 금		간염내과 (☎2216, 2219)	이진수	*	간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목	월, 화			
	방병옥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백지현		간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금	수			
	진영주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류마티즈센터 (☎2210~1)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김성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2,3)	월 오후: 2:00~4:00 진료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목, 금	화, 목			
	나소연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4)	월 오후: 4:00~6:00 진료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목, 금	월, 수			
	이태웅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1,5)	월 오후: 1:00~3:00 진료		정경희		관절염, 골다공증	화, 수	화, 목, 금			
한지영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주고운			관절염, 통풍, 소그렌즈후군	화, 수	월, 목				
김상구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일 반				월	수, 금				
조형찬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알레르기내과 (☎2216)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금	화, 목				
박현신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일 반			월	수, 목				
일 반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내과계열반	일 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화, 목 (금)	월 수(2,4) 금		수 오후: 2:00~4:00 진료	외과 (☎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중앙	월, 화 (수), 금	수, 목(1,3)	목 오후: 4:00~6:00 진료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중앙, 만성폐질환	월 (화), (목)	(화), 화, 목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월, 목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수), 목(4)	목 오후: 2:00~4:00 진료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중앙, 만성폐질환	수, 금	(화), (금)	▶▶▶▶▶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수), (금), (월)	▶▶▶▶▶		
폐암 내과 (☎3890)	이홍렬	*	폐중앙	금			흉부외과 (☎2280)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 목	화	▶▶▶▶▶		
	곽승민	*	폐중앙	수				백양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수	화			
	류정선	*	폐중앙	화, 목	월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월, 목(▶)			
	조재화	*	폐중앙	수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수(▶), 금(▶)	수(▶), 금(▶)			
	이현규	*	폐중앙	월	목			김영삼	*	폐, 식도질환, 다한증, 흉곽기형	수(▶), 금(▶)	수(▶), 금(▶)			
	남해성		폐중앙		화, 금			김재호		일반흉부질환	목	화			
	김광호		폐중앙	화				신경외과 (☎2370)	박종운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정택		폐중앙	월	목				박현천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윤용한		폐중앙		수, 금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증, 3차신경통, 소아	월(▶), 수(▶)	목(▶), 수(▶)		▶▶▶▶▶	
	김영삼		폐중앙	수	금			박현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수			
최해진		불안장애	수	금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최해진		불안장애	수	금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사이버나이프, 척추측만증	금	화, 금(▶)					
최해진		불안장애	수	금		송준호	*	뇌종양, 뇌혈관질환,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금	화					
최해진		불안장애	수	금		심우식	*	머리외상, 두통, 뇌혈관질환	화	화					
최해진		불안장애	수	금		오창현		요통, 디스크, 허리, 척추관 협착증, 척추절골	금	화					
최해진		불안장애	수	금		일 반			화	목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	흉부외과 (☎2280)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 목	화	▶▶▶▶▶		
	남문석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수, 목				백양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수	화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목, 금	월 (화), 수	상선조직검사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월, 목(▶)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월, 수	화 (수), 금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수(▶), 금(▶)	수(▶), 금(▶)			
	일 반				월, 금			김영삼	*	폐, 식도질환, 다한증, 흉곽기형	수(▶), 금(▶)	수(▶), 금(▶)			
비만 내분비내과 (☎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신경외과 (☎2370)	박종운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소현	*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2형당뇨병		수			박현천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증, 3차신경통, 소아	월(▶), 수(▶)	목(▶), 수(▶)		▶▶▶▶▶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박현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수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성형외과 소아	김연수		재활윤곽, 유방축소, 유방하수관질환, 부부성형술	수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사이버나이프, 척추측만증	금	화, 금(▶)				
	김순기	*	소아비만	금			송준호	*	뇌종양, 뇌혈관질환,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금	화				
	이지은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목		오후진료: 14:00~16:00	심우식	*	머리외상, 두통, 뇌혈관질환	화	화				
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목		오창현		요통, 디스크, 허리, 척추관 협착증, 척추절골	금	화				
	일 반				금		일 반			화	목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신장센터 (☎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목	오후진료: 16:30~16:30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수	월, 목, 금	오후진료: 08:30~10:30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랜드마크! Inha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대한민국 하늘 아래 처음 만나는 글로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글로벌 의료서비스,  
세계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Inha IMC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 건강검진 |

- 인천국제공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Inha IMC는, 1:1 개별 진료실에서 One-Stop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 건강검진, 치과, 피부미용(스파), 한의과 등 최신 메디컬 트렌드에 맞추어, 세계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 의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치과 |



| 피부미용(스파) |



| 한의과 |

**INHA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하국제메디컬센터 | Tel : 032-206-1888 ARS : 1600-9970 E-mail : info@inhaim.com  
www.inhaim.com

2012년 7월 **OPEN!**

